

35년 전통 창호 기업, 차세대 고성능 기술 선보여

㈜원체

㈜원체(대표이사 김형진)는 차양과 창호를 결합한 에너지 절감형 시스템 창호 ‘ZeroCore’를 개발한 35년 전통의 창호 전문 기업이다. 최근 국토교통부 정책 연구개발사업인 ‘고층형 제로에너지건축물(ZEB) 3등급 공동주택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연구단에 참여하며 차세대 고성능 창호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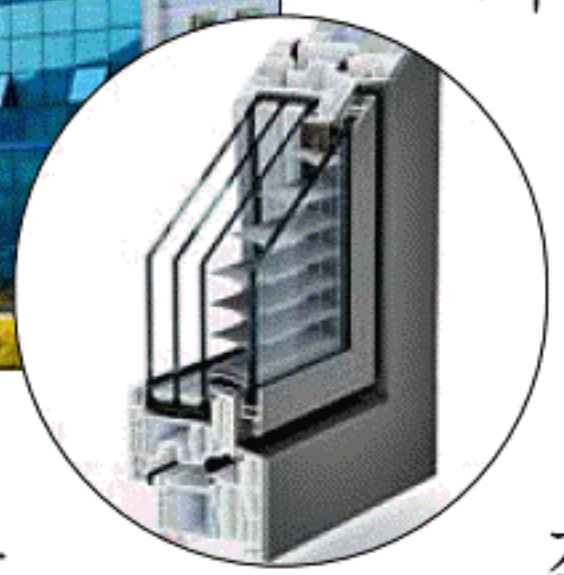
원체가 선보인 ‘외부 차양이 포함된 시스템 창호(상품명 ZeroCore)’는 외부 차양 장치들



창호 구조에 일체화한 시스템 창호로, 기존 외부 차양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차양은 유지 관리와 내구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던 반면, ‘ZeroCore’는 창호와 차양을 통합 설계해 시공 호

울성과 유지관리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특히 창 외부에서 유입되는 일사열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실내 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냉방 에너지 사용 저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차양이 적용된 유리부를 개폐할 수 있도록 설계돼 기존 외부 차양 시스템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했다. 김형진 원체 대표는 “원체는 ZEB 시대에 대응하는 고성능 창호 솔루션을 지속해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접촉 정밀 센싱 기술로 글로벌 시장 공략

밀리사이트테크놀로지스㈜

밀리사이트테크놀로지스㈜(대표 양종렬)는 2023년 설립된 전기·전자공학 기반 딥테크 스타트업으로, 전파 기반 비접촉 정밀 센싱 기술 분야에서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오랜 연구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반도체 회로설계, 초소형 모듈 및 패키징, 응용 특화 신호처리 기술을 통합한 센서 시스템 전주기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요구되는 고신뢰·고정밀 센싱 솔루션을



구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기반은 단일 센서 개발을 넘어 다양한 산업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밀리사이트테크놀로지스의 핵심 기술 중, 첫째는 전파 기

반 비접촉 생체신호 및 낙상 탐지 기술로, 인체의 미세한 움직임과 상태 변화를 정밀하게 감지·해석할 수 있다. 해당 기술은 카메라와 달리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없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며, 고령자 케어 및 헬스케어 분야에서 높은 활용도를 보이고 있다. 둘째는 밀리미터파 및 서브테라헤르츠 대역을 활용한 비파괴 영상 시스템 구현을 위한 반도체 IP 기술이다. 이를 통해 내부 구조를 손상 없이 확인할 수 있다.

태양광 기반 친환경 조명 솔루션

위즐㈜

위즐㈜(대표이사 홍종국)은 태양광 기반 친환경 스마트 조명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술 기업으로, 지속가능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위즐의 태양광 일체형 LED 가로등은 단결정 태양광 모듈과 슈퍼캐패시터 기반 배터리, 고휘도 LED 광원을 하나로 통합한 올인원 구조로 설계돼 설치와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전력망 연결 없이 운영 가능해 전기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활용



도가 높고,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조명 제공이 가능하다. 이번 특허 기술은 가로등 설치 시 등기구 각도를 쉽고 정밀하게 조절하고 그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적용했으며 LED마다 타원형 렌즈를 적용해 빛 확산 효율을 높였다.

전통시장 아케이드 안전 혁신 선도

㈜김이장하우징

신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전문건설기업 ㈜김이장하우징(대표 김유미)은 2019년 설립 이래 성실과 책임 시공을 원칙으로 성장해 온 전문건설업체다. 금속 구조물 및 지붕판금 전문 시공 분야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난 안전에 특화된 건설 현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김이장하우징은 2024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된 ‘전통시장법령’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변색·균열·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료 발굴에 매진했고, 2026년 ‘아케이드 및 터널 방음벽용 투광패널’ 특허 개발에 성공했다. 특허 제품 ‘준불연 투광 AL 복합패널(FRLT-ACP)’은 ▶화재 안전성 ▶내구성 및 방수성 ▶시공 편의성 ▶미관성 등의 차별점을 보유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돕는 전자문서 공급

㈜인투소프트

㈜인투소프트(대표 황경민)는 전자문서 기반 업무 프로세스의 디지털 전환(DX)을 지원하는 전자문서 솔루션 기업으로, 전자서명, 전자평가, 전자인장, 전자문서 뷰어를 통합한 전자문서 플랫폼 기술을 자체 개발해 공공기관·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인투소프트는 계약, 협약뿐 아니라 입찰평가, 사업심의평가, 연 구 평가 등 다양한 문서 기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며 업무 효율 개



선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자 문서 기술과 동적 문서 기반 기술을 적용해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적 처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별도의 환경 변경 없이 전자문서 기반 업무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AI 활용한 양방향 스토리텔링 서비스

피이그(FIG)㈜

피이그㈜(대표 이승환)는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로, 모든 크리에이티브를 직접 제작한다. 예술·문화를 기반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며, 광고·캠페인·프로모션은 물론 이벤트·페스티벌 기획까지 폭넓은 영역에서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핵심 경쟁력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양방향 스토리텔링 플랫폼’이다. 해당 서비스는 인공지능(AI), 전문 창작자(일명 채굴꾼),



사용자(관객) 등 세 주체가 함께 참여해 스토리를 완성하는 구조로, 기존의 단순 텍스트 생성형 AI를 넘어서는 협업형 콘텐츠 제작 환경을 구현한다. 특히 복수의 세계관을 사전 학습한 AI를 기반으로 일관된 스토리텔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별 맞춤 워크플로우로 AX 지원

㈜젠다이브

생성형 AI 전문기업 ㈜젠다이브가 통합 AI SaaS ‘devdive’를 통해 기업의 실질적인 AX(AI 전환) 지원에 나선다. 단순히 여러 AI 모델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업무 흐름을 구조화하고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AI 워크플로우(Workflow)’ 기능을 전면에 내세웠다.

젠다이브는 AI 채팅, 이미지·비디오 생성, 음성, 웹 검색 등을 ‘블록’ 형태로 제공한다. 사



용자는 이를 조합해 기업 맞춤형 워크플로우를 구축하고, 조직 내에서 공유 및 재사용할 수 있다. 특히 마케팅 분야의 광고 카피 작성, 쇼트 폼 제작, 문서 요약 등 반복적인 업무를 표준화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친환경 공법으로 배관 스케일 제거

한난스케일닥터

한난스케일닥터는 열교환기 및 각종 배관 설비의 고질적인 문제인 ‘스케일(이물질)’ 제거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전문기업이다.

한난스케일닥터는 산업 현장의 열교환 효율을 저하시키는 스케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공법을 결합한 차세대 스케일 제거 플랫폼을 고도화하며 시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자체 개발한 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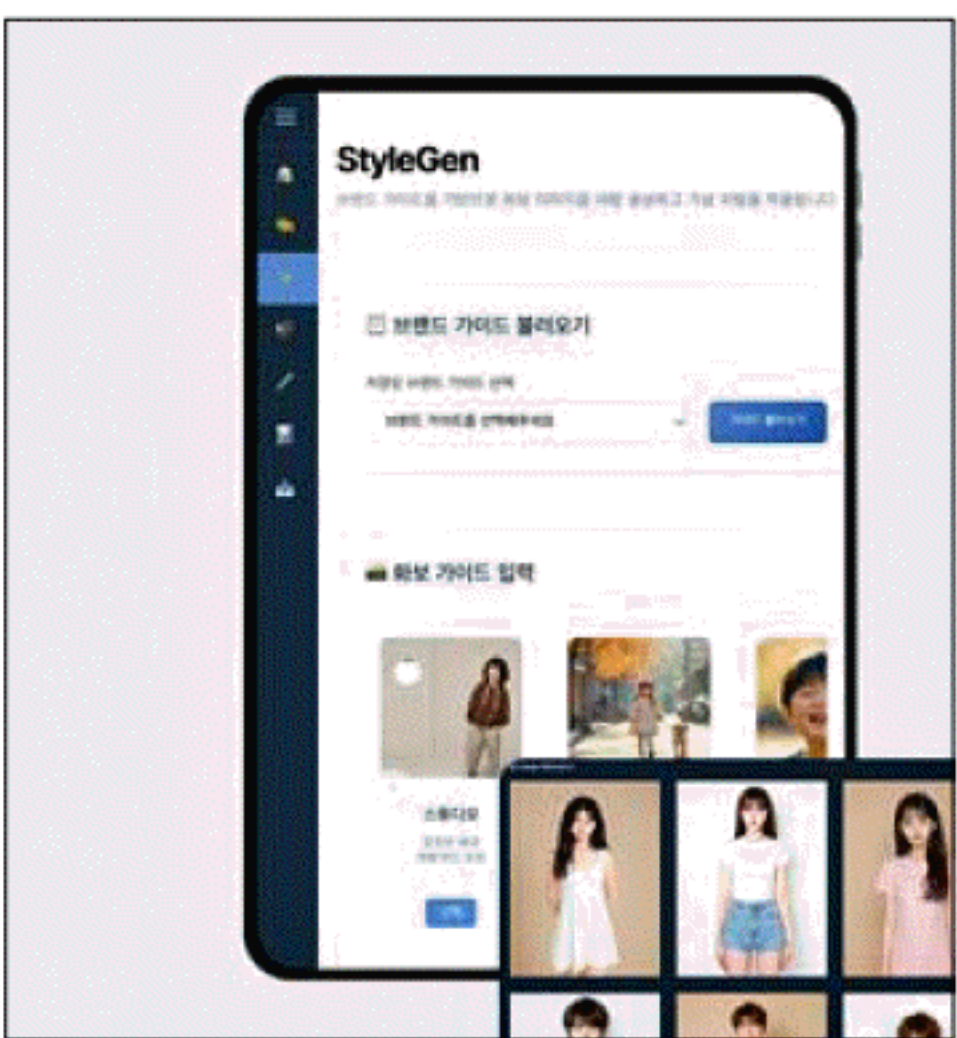


기술과 정밀 진단 시스템을 축으로, 설비 내부의 스케일 분석부터 맞춤형 제거 공정, 사후 관리까지 일관된 포털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방식 대비 세정 시간 단축과 설비 손상을 최소화해, 실제 현장에서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AI로 의류 쇼핑몰 콘텐츠 자동 생성

㈜에이씨엠컴퍼니

㈜에이씨엠컴퍼니(대표이사 김은진)의 ‘의류 쇼핑몰 최적화’를 위한 AI 기반의 콘텐츠 자동 생성 시스템은 의류 이미지나 영상을 업로드하면, AI가 계절, 배경, 스타일 등 조건에 맞춰 이미지·영상 콘텐츠, 가상 모델 및 피팅 데이터를 자동 생성하는 기술이다. 또한 자막 생성, 하이라이트 추출, 타겟 맞춤형 콘텐츠 재구성 기능을 통해 상세페이지와 광고 소재 제작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보다 최적화된 상품 콘



텐츠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김은진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콘텐츠 자동화와 수요예측 기술을 결합한 AI 솔루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물 산업 신기술 ‘UFB 발전기’ 제조

코리아베르톨드㈜

코리아베르톨드㈜(대표 이성수)는 1996년 설립 이후 독일 베르톨드의 비접촉식 계측 장비를 철강, 석유화학 등 국내 산업계에 공급해왔다. 이후 2013년 기술연구소를 설립해 물 산업의 신기술인 초미세기포(UFB) 기술을 독자 연구 개발하며 ‘UFB 발전기’를 제조·공급하고 있다.

UFB 발전기는 가정용 수도 계량기 직후에 간단히 설치하는 것만으로 집안에서 사용하는 모든 수도물을 0.001mm의



UFB수로 변환시킨다. 이 UFB수는 뛰어난 세정 효과와 침투성으로 배관 내 스케일 및 바이오필름 생성을 억제하고, 세제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절감시켜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한다. 이를 통해 편리한 생활과 가족의 건강 증진까지 기대할 수 있다.

스티로폼 대체할 생분해 포장재 내놔

㈜바이오룸

㈜바이오룸(대표 송주영)은 버섯 균사체와 자연 부산물을 활용해 스티로폼을 대체하는 생분해성 포장재 ‘마이로폼’을 개발하고 있다. 균사체 기반 신소재 연구 및 양산 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포장재 시장에서 상용화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

또한 배지 액상화와 자동화된 배양·경화 공정을 기반으로 기존 균사체 소재의 한계를 개선하고, 별도의 내부 배양 기간을 줄이는 특허 기술을 확보해 제조



효율과 사업성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 이를 통해 친환경성, 물성, 생산 경쟁력을 갖춘 소재 플랫폼 구축에 집중한다.

향후 바이오룸은 국내외 친환경 인증과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